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 및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에 관한 청원

##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종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산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종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소개한,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 및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2009년 10월 “한남제3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주변 393,729m<sup>2</sup>(약12만평, 조합원 3,880명)의 주택재개발사업 공공관리 추진에 있어서, 서울시가 협의된 건축 최고 높이보다 축소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건축심의를 보류한 것에 대하여 조합원이 건축심의 재개 등을 요청한 것으로,

서울시는 당초 촉진계획결정고시로 건축 최고 높이를 118m로 결정하였으나 서울시 행정편의에 의한 기준변경으로 최고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여, 당초의 계획으로 추진되던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저하시켰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많은 장애를 만들었으며,

더욱이, 서울시는 장기간 7차례의 건축자문과 건축심의에도 결정을 내지 못한 상태로 기한 없이 심의를 보류시켰고, 한남지구 전체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서울시의 결정으로 3,880명의 한남3구역 조합원은, 장기간의 사업지연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건축물 노후로, 불편한 생활의 고통이 극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아 공공의 기준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나, 서울시의 사업 진행단계를 무시한 일관성 없는 기준 적용이, 수많은 시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청원을 제출한 주택재개발 지역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십분 이해하시어 본 청원 건을 채택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